國展是非

제17회

南寬分委長辭退의 辯

"나 모르는새 授賞결정"

審査委구성은 活動作家로

<南 寬씨>

어느해보다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기해 애썼다는 文公部의 主張에도 불구、十七回 國展에 또다시 개운찮은 反抗이 노골적으로 튀어나왔다。西洋畫部審査委員長인 南寬씨가 最終審인 特賞作選定투표 중 「심사가 事前談合에 의한 돌려먹기」라 주장、각部門마다 하나씩 配當되는 文公部長官賞도 거부하고 退場해버린것이다。

十五年만에 「프랑스」로부터 지난 八月에 귀국、처음으로 國展審査에 참가한 南화백의 이 「슬픈」 사건에 대한 경위설명에 의하면 二十六日의 最終審에서 大統領賞·國會議長賞·國務總理賞 수상작의 선정에서 하나같이 西洋畫와 工藝부문이 각 一票씩 얻고 나머지 五票가 일치하여 受賞作으로 몰렸다는 것。결코 우연으로 볼수 없는 이 投票결과는 「사전 受賞部門을 배정하기로 담합했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해주는 결론이 아니겠느냐」는 心證을 굳혀주었다고。南화백은 의례적으로 돌아온것과 해당작이 없는 건축부문으로부터 돌려진 두개외 文公部長官賞까지 결정했음에도 分委長인 자신도 몰래 어떻게 文公部長官賞수상작이 결정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한다。

─우리畫壇의 내막에대해서는 전혀 생소하고 따라서 그가 활약한 「프랑스」식으로 생각없이 순수한 作品위주의 심사를 기했다는 南寬씨는 이번의 경위로서 「全出品作의 三분의一을 차지하는 西洋畫부문이 경시되고 그 심사가 지나치게 「情實的」이라고 비판한다。작년의 大統領受賞作家가 올해에는 豫選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國展심사가 얼마나 엉성했는가 단적으로 실증하는것이라고 지적한 그는 다른해보다 낫다는 올해의 심사마저 그동안의 적폐(積弊)를 씻지못했다고 말한다。

이럼에도 작품자체는 기대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南화백의 評이다。그자신의 눈으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公募展수준에 그리 멀어지지않는 몇몇 젊은 作家의 좋은 작품들이 있었」지만 旣成人을 옹호하는 情實的심사로 낙선되었다고 주장한다。이런점에서 審査委員은 「현재 활동하고있는 진정한 作家로 구성되어야한다」고 역설한다。왜냐하면 「진정한 作家란 자기작품에 깊은 고민을 갖고있기 때문에 남의 작품에 그만큼 깊은 理解와 愛情을 갖는다」는것。따라서 이들의 심사는 畫家의 이름이나 그 연줄대신 「作品本位로 선택、그것이 갖고있는 素質과 에스프리、창의력 및 將來性까지」 보게된다。외국에서도 작품심사에 말썽이 없지않지만 그것은 보는 角度에 따른 것이고 거의 우리國展과 비슷한 「프랑스」의 「르·살롱」展(佛美術協會)에서 佛語도 모르는 무명의 金昌洛씨가 연거푸 銀·金賞을 획득한 예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抽象畫家인 南씨는 西洋畫부문에 具象과 非具象으로 분리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들이 스스로를 「韓國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작품자체만을 조박하게 볼수있다」고 해명한다。올해의 「슬픈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위촉을 받는다면 「우리의 젊고 유능한 畫家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도 國展審査에 참가할것」이라고 밝혔다。

類派중심 경쟁을 藝術人 姿勢부터

"我執沒理解의 風土"

<李文公部차관>

말썽많은 國展을 인수、革新的인 運營을 시도했음을 자부하는 李春成文化公報部次官은 國展이 名實相符한 행사가되기위해서는 主管行政部處의 지원이나 노력보다도 韓國藝術人들의 「我執」과 他作品경향을 이해하려들지않는자세등 風土改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課題라고 力說하고 文公部가 發足하면서 처음으로 맡은 「革新의 계기」를위한 노력과 고충을털어놓았다。

美術人들은 좋게말해 藝術的인 「我執」에 빠져있고 나쁘게말해 다른 美術人의 畫風이나 類派中心的인 美的경쟁의 風土가 조성되지못했다고 지적한 李次官은 個人中心의 서름이 판을치고 相對藝術人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不和가 尙存하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런현상이 지난十六年間 國展에 投影돼왔고 이번의 「새로운 기도」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한 원인이었다는것。

四十五명으로구성된審査委員會委員人選에 文公部가 개입하고 原則(連任방지)이 제대로지켜지지않았다는 비난에대해 李次官은 종래의人選이 國展作品審査委員會규정(大統領令제一九七九호)의 明文에도불구하고 작년까지는 藝術院會員人士를 사실상 전원심사위원으로 위촉했었다고 설명하고 藝術院美術分科委의專橫을 방지했음을 강조했다。

李次官은 西洋畫部門 「核F九○」의 말썽은 해당西洋畫分科委員들의 投票에 의한것으로 合法的處事라고 말하고 안배설(按配說)은 行政담당자로서 무어라고말할수도、확인할수도 없는게아니냐고되물었다。

現代藝術로서의 書藝

造形構成에 創意갖춰야

大家의亞流 受賞가치없어

<金相沃씨>

해마다 國展이 열리면 말썽이 일어난다。말썽이 일어난다고해서 그것으로 말썽된것은 없다。여러사람이 是非曲直을 가리고 批判함으로해서 보다더 옳은 眞實을 옹호하고 向上시킬수있겠기에 말이다。그 말썽가운데서도 더욱 올해들어 書藝部에 대한 是非에 관하여서는 한마디 論難이 없을수 없다。그 是非인즉 國展項目중에서 書藝가 어찌 最高賞인 大統領賞을 받을수 있는가하는것이요、또다른 하나는 그受賞作品이 作家로서의 個性이 없는、다시말하면 審査委員 某씨의 그것과 너무 類似하다는 점이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태까지 最高賞및 그 외의 賞이 適當히 안배(按配)되었다는 問題이다。

그러면 먼저 最高賞受賞對象의 書藝의 是非다。비록 國展의 한 項目으로 書藝는 끼어주기야 했지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地域的 歷史的 特殊性인것、書藝는 곧 現代藝術의 槪念으로는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니 다만 國展의 엑스트라로 놀려있어야지 감히 最高賞을 넘겨다 본다는 것은 외람되다는것이다。무릇 造型藝術인 美術이 現代藝術로서 어떻게 규정지을것인지 그것은 여기서 새삼스레 따지어 말할것은없다。다만 書藝라는것은 人間의 意思傳達의 記號에 不過한 文字들을 잘쓰고 못쓰고하는것이 어찌 現代藝術로서 기치를 풀고 參與할수있느냐는것이다。이와같은 새롭고 根本的인 懷疑에는 充分히 理由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하면 어디까지나 美術은 그手段이 造形인바에야 書藝또한 現代藝術로서 그一翼을 擔當할수 있는것이다。過去와 같이 法帖을 놓고 臨書함으로써 소위 筆力을 얻고 金石氣를 가진다해서 다만 그것으로 現代藝術이라 이를수는 없는것이다。그렇지만 意思傳達의文字를 떠나서 그 造形的 構成에 새로운 創意가 미친다면 그것은 오히려 어떤分野의 造形보다 가장 現代的인 意義를가진 美術일 수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國展에서 書藝가 엑스트라 아닌 最高賞을받았다해서 是非한다면 그것은 그是非하는사람의 無知를 말할수밖엔 없는것이다。

그러면 그다음 今年度 最高賞을받은 書藝作品에 대한 問題다。過去와같이 누가 六朝를 잘쓰고、누가 顔眞卿을 잘쓰고 또 누가 何紹基를 닮았다하자。그와같이 가령 누가누구를 닮았다해서 是非한것은 없다。그렇지만 오는날에 있어서 國家의 最高賞을받는데 作家의 創意性이 없는作品이라면 그것은 充分히 是非의 對象이 될수있다。

阮堂이후 孫在馨씨같은 특이한 作家는 書藝의 傳統的인 그림자와 造形美術로서의 새로운創意를 試圖함으로써 書藝로하여금 能히 現代藝術에 參與할수있다는 길을 터놓은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럴수록 그의 亞流와 그의 類似를 그대로 높이 評價할수 없다는 것은 筆者도 同意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授賞안배에 대해서는 國展體制의 問題이기때문에 國展을 主管하는 當事者의 보다 적절한 運營의 妙를期待하고 圓滿한 方法을 모색하도록 促求할수밖에 없지않는가 싶다。

<金相沃·詩人>